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1:50 < 11.24.(화) 석간 > 배포 2026. 11. 23.(월)

1초만에 새어나가는 10년의 땀… 예방·점검·처벌 강화로 기술 사수

- 산업부·국정원, 제16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및 2026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11.24.(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6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기술·투자·연구를 잇는 산업안보, 경제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보호와 투자·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첩죄 개정과 기술보호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으로 11시부터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열려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식후 행사 및 연계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기술 환경에 맞춘 실질적 해법이 논의되었다. △AI 혁신과 AI 보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보안점검 기준과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다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투자 안보 패널토론, 연구안보·지식재산 세션 등 분야별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박동일 산업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술 개발에는 10년이 걸리지만 유출에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기술유출은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예방과 선제적 점검, 엄정한 처벌, 관계기관 공조로 우리 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빈틈없는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기술안보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오늘날 안보의 최전선은 군사적 방어의 개념을

넘어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호해야 하는 경제안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산업기술과 핵심인력 유출은 더 이상 기업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인 만큼, 정부와 각계가 뜻을 하나로 모아 기술안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유 은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서준혁 (044-203-48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16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및 2026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요**

□ 행사 개요

※ 산업기술보호법 제정('06.10.27) 계기 '11년 이후 기념식(산업기술보호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14년 행사부터 국정원과 공동개최(산업보안 컨퍼런스)

○ 일시·장소 : '26.11.24(화)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H

○ 참석자 : 산업부 차관, 국정원 원장, 산업보안 유관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 등 총 700여명

○ 주요내용 :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산업기술보호 관련 세션발표 (간첩죄 개정과 기술보호 전략, AI혁신과 AI보안 등)

□ 행사 세부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10:00 ~ 11:00	(세션1) 경제안보 시대, 간첩죄 개정과 기술보호 전략	삼성 전자
본행사	11:00 ~ 12:00	환영사 (국가정보원 원장)	
		기념사 (산업통상부 차관)	
		축사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경총 회장, 서울대 총장, KG그룹 회장)	
		유공자 포상	
식후행사	13:30 ~ 16:30	참여기관 발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지재처)	
		(세션2) AI혁신과 AI보안 기업 경쟁력의 두 축	현대 오토에버
		(세션3) 국가핵심기술 수출, 보안점검의 기준과 활용	LG 이노텍